<10.16873/tkl.2018. 79. 8>
한국문학논총 제79집(2018. 8) 255~280쪽

# 최승자 시에 반영된 부정적 언술과 실존의식

전 재 형*

차 례

1. 머리말
2. 부정적 언술과 자아인식
3. 근원적 모태와 병든 모태
4. 본질의 벗어남과 실존의식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승자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정적 언술과 실존의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는 전통적인 서정을 파괴하는 부정적 언술과 자기비하를 통해서 암울하고 우울했던 1970~80년대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부권과 함께 기존의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을 부정한다. 이러한 최승자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실존의식은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로부터 벗어남에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평온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고 있던 '집'으로부터 벗어남을 뜻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 '집'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전통적인 서정을 벗어나 새로운 서정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서정을 벗어나 새로운 서정을 추구하고 있는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존의식이다. 이러한 실존의식은 사르트르가 주장한 실존주의로 천착해 볼 수 있다. 실존주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의미가 부여될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오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어떤 것에 의해서도 평온함과 안락함을 의지할 수 없게 된, 한 개인의 고독한 현존상태에 있는 존재 그 자체를 깨닫게 된다. 그녀는 이러한 점을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최승자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정적 언술과 자기비하에는 주체적인 자아가 의식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인식과 함께 전통적인 서정을 벗어나 새로운 서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실존의식을 반영한다. 필자는 이 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주제어 : 실존의식, 자기비하, 여성, 부정적 언술, 루머, 모태

## 1. 머리말

최승자는 1979년 계간『문학과 지성』가을호에 <이 시대의 사랑>외 4편을 발표하면서 시단에 등단하였다. 그런 그녀의 시는 전통적인 서정을 파괴하는 부정적 언술과 자기비하를 통해서 주체적인 자아가 인식하고 있는 실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최승자 시에서 주제가 되고 있는 사랑은 주체적인 자아가 체험하고 있던 1970~80년대의 암울하고 우울했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를 드러내고 인식할 수 있게 하였던 기존의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 최승자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사랑과 죽음 그리고 자기비하를 통한 부정성을 통해 실존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1]에 의하면 최승자의 시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고통스런 신음

에 대한 소리로서 죽음, 슬픔, 기억, 추억을 게워낸 토사물이라고 지적한다. 그런 토사물 중에는 서정 시대가 끝나고, 서정 연습의 시대라고 하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시인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에 주목하였다. 김정신[2]은 최승자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정의 정신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에서 반영된 부정의 정신은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 1980년대의 폭력적인 사회 통제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 정신에는 외부적인 억압 구조와 내면적인 억압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혜경[3]은 최승자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순어법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녀의 시에서 반영된 모순어법에는 자조적이고 자학적인 어조로서 자기 파괴적인 것을 통해 비극적인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時代의 사랑』[4] 이후에 발간된 세 번째 시집까지 실려있는 시들을 텍스트로 하였다. 그 이유는 부정적 언술과 함께 각각의 시집에서 반영되고 있는 실존의식에 대한 변화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시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念頭에 두고 필자는 최승자의 시가 성취하고 있는 문학적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 究明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비하와 부정적 언술로 표현되고 있는 고백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1970~80년대의 암울하고 우울했던 사회적 현실인식부터 천착해볼 필요가 있다.

---

1) 김 현, 「게워냄과 피워냄」,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말들의 풍경』, 문학과지성사, 1991.
2) 김정신, 「최승자 시에 나타난 부정의 정신」, 『현대문학이론연구』 5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 김혜경, 「최승자 초기시 연구」, 『한남어문학』 37, 한남어문학회, 2013.
4) ① 『이 時代의 사랑』(1981), ② 『즐거운 日記』(1984), ③ 『기억의 집』(1989) 이하 본문에서 인용된 시집의 시는 각 시집 앞에 붙인 원의 번호수로 표기함.

## 2. 부정적 언술과 자아인식

최승자의 첫 시집『이 時代의 사랑』은 제목에서 시사하고 있듯 '이 시대'라고 하는 시간적 응축을 통해서 전통적인 抒情과 다른 서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서정 시대는 끝났어./서정 연습 시대가 있을 뿐이야"(<날이 흐리고>③)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개 같은 가을이 쳐들어 온다./매독 같은 가을"(<개 같은 가을이>①)이라고 표현한 부정적 언술에는 시적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고 있듯 가을이란 탐스럽게 익은 사과, 밤, 배, 대추 같은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는 시기로서 사계절 중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다. 그런데 시적 화자는 '개 같은' 혹은 '매독 같은' 가을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부정적 언술을 통해서 普遍的 槪念에 대한 本質을 부정한다. 그와 동시에 시적 화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찌기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 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 가면서
일찌기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너를모른다 나는너를모른다.
너당신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 <일찌기 나는>① 전문

위의 시는 “일찌기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마른 빵에 핀 곰팡이”, ‘오줌 자국, 죽은 시체’라고 하는 자기비하에 대한 부정적 언술을 통해서 주체적인 자아가 의식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찌기’라는 부사어와 ‘천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적 표현에는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돌쩌귀처럼 맞물려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 같은 가을이>다에서 ‘개 같은’ 혹은 ‘매독 같은’ 가을이라고 비유하는 부정적 언술에는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보편적 개념에 의한 본질[5]에 의해서 주체적인 자아는 억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찌기 나는>에서 ‘일찌기’라는 부사어와 ‘천년 전’이라는 시간적 표현에는 주체적인 자아가 의식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인식이 얼마나 오래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반면에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 주지 않았다”는 2연의 고백체를

5) 최승자는 자신이 살아왔던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 1980년대의 폭력적인 사회 통제를 부권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짓밟기 잘 하는 아버지의 두발이/들어와 내 몸에 말뚝 뿌리로 박히고/나는 감긴 철사줄 같은 잠에서 깨어나려고 꿈틀거렸다”(<다시 태어나기 위하여>①)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기존의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을 근원적인 모태로 바라보고 있다. 그와 동시에 평온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게 되는 근원적인 모태와 부권을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최승자는 “폐허의 사원과 굳어진 죽은 바다”(<여성에 관하여>②)를 근원적인 모태와 기존의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점에 대해 3장과 4장에서 세밀하게 천착해 보고자 한다.

통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시대의 암울하고 우울했던 사회적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최승자가 살아왔던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 1980년대의 폭력적인 사회 통제와의 관계 속에서 유추해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녀의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정적 언술에는 폭력적인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문화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힘에 저항하기 위한 문화적 반작용의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문화적 반작용의 폭력이라고 해서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서정과 다른 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폭력적인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문화권 안에서 억압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였던 힘 그 자체를 의미한다.[6)]

최승자에 의하면 폭력적인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대의 "거리엔 건조한 먼지들만 횡행했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언제나 잠들어 있거나 취해 있거나 아니면 시궁창에 빠진 헤진 신발처럼 더러운 물결을 따라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거나 "개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고요히 침을 흘리며 죽어"(<197×년의 우리들의 사랑>②)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폭력적인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존재는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살아온 존재는 '곰팡이, 오줌 자국, 죽은 시체, 헤진 신발, 개'로 비유되고 있다. 그런데 3연에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하고, 4연에서는 "내가 살아 있다는 것,/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체를 통해서 주체적인 자아가 의식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찌기 나는>과 <197×년의 우리들의 사랑>에서 '곰팡이, 오줌 자국, 죽은 시체, 헤진 신발, 개'로 비유하고 있는 부정적 언술을 통해서 주체적인 자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두 편의 시에서 확인할 수

6) 최승자, 「폭력을 넘어서」,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책세상, 1989, 140쪽.

있는 공통점은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 가”고 있거나 “고요히 침을 흘리며 죽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두 편의 시에서 “일찌기 나는 아무 것도 아”닌 혹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아”닌 존재로 살아왔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찌기 나는>에서 밤하늘에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잠시 스쳐”가는 만남을 통해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서정시에서 표현되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는 주체적인 자아의 모습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연에서 “내가 살아 있다는 것”에는 기존의 서정시에서 비유되고 있는 표현의 방식으로는 주체적인 자아의 모습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 반대로 주체적인 자아의 모습을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루머’에 지나지 않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rumour’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소문’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에 의해 허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루머)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는 주체적인 자아의 모습을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왜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통해서 최승자는 주체적인 자아가 의식하고 있는 실존의식을 반영한다. 그것은 부정적 언술과 자기비하를 하고 있는 시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아무의 제자도 아니며
누구의 친구도 못 된다.
잡초나 늪 속에서 나쁜 꿈을 꾸는
어둠의 자손, 암시에 걸린 육신.

어머니 나는 어둠이에요.
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
풀섶에서 일어난 어느 아침부터
긴 몸뚱어리의 슬픔이에요.

…(생략)…
잡초나 늪 속에 온 몸을 사려감고
내 슬픔의 毒이 전신에 발효하길 기다릴 뿐

뱃속의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구하듯
하늘 향해 몰래몰래 울면서
나는 태양에의 사악한 꿈을 꾸고 있다.

— <자화상>① 부분

위의 시 또한 <일찌기 나는>처럼 "나는 아무의 제자도 아니며/누구의 친구도 못 된다"와 같이 "하늘 향해 몰래몰래 울면서/나는 태양에의 사악한 꿈을 꾸고 있다"라는 고백체를 통해서 주체적인 자아가 의식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주체적인 자아가 추구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최승자에게 있어 시 창작이란 폭력적인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문화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에 억압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했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자기비하와 부정적 언술로 표현되는 그녀의 시에서는 기존의 억압적인 것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것들, 인습적인 것들[7]을 부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와 동시에 부권은 극복되어야만 하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강한 비명과 비탄, 과격한 에너지를 가진 어휘들과 이미지[8] 등으로 표현되는 자기비하와 부정적 언술로 확인할 수 있다.

<자화상>에서 서술되고 있는 주체적인 자아의 모습은 "잡초나 늪 속에서 나쁜 꿈을 꾸는/어둠의 자손"인 동시에 '암시에 걸린 육신'을 소유한 뱀으로 비유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신체제가 지배하고 있던 1975년[9]

7) 최승자 「'가위눌림'에 대한 시적 저항」,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앞의 책, 160쪽.
8) 최승자, 위의 책, 164쪽.
9) 최승자에게 있어 1975년은 엄청난 양의 절망적인 피를 흘리도록 강요했던 한 해

이라는 그 사회에서는 행복한 사랑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197×년, 우리들 꿈의 오합지졸들이 제 아무리 집중 사격을 가해도 현실은 요지부동이었다. 우리의 총알은 언제나 절망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197×년의 우리들의 사랑>)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체적인 자아가 추구하고 있던 꿈은 "죽음이 죽음을 따르는/이 시대의 무서운 사랑"(<이 시대의 사랑>①)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이 죽음을 따'른다는 표현에는 연좌제[10]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한다. 그와 동시에 연좌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의해서 주체적인 자아가 원죄의 상징인 뱀으로 비유되고 있던 근원에 대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뱀은 아담과 이브를 꼬여내 善惡果를 먹게 하여 그 둘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원흉이다. 그런데 <자화상>에서는 주체적인 자아의 모습을 뱀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뱃속의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구"한다와 함께 "나는 태양에의 사악한 꿈을 꾸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죽음이 죽음을 따르는/이 시대의 무서운 사랑"에 내포되어 있던 상징적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그것은 연좌제에 의한 부당한 처벌도 감수해야만 하는 사랑이 내포한 의미로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

---

였다. 왜냐하면 그 해 1월, 졸업을 한 달쯤 앞둔 모대학생인 한 청년이 간첩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양철북 유감」이라는 산문에서 그녀가 고백하고 있듯, <이 시대의 사랑>은 절망적인 체험을 하였던 한 가운데에서 창작된 것이었고, <197×년의 우리들의 사랑>은 칠 년이 지난 후 그 때의 체험을 뒤돌아보며 창작하였다는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최승자, 「양철북 유감」,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앞의 책, 135쪽 참조.)

10) 최승자는 1971년 고려대 독문과에 입학한 후 재학 중인 유신시대에 교지 『고대문화』의 편집장을 맡던 중,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김정신, 앞의 책, 184쪽 참조.) 이러한 점을 통해 <이 시대의 사랑>에서 '죽음이 죽음을 따'른다는 시적 표현에는 連坐制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최승자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던 유신시대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연좌제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면 “어둠의 자손, 암시에 걸린 육신”에 의해서 주체적인 자아가 추구하고 있던 사랑은 아담과 이브를 꼬여내 선악과를 먹게 하였던 뱀과 같은 사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화상>은 마지막 연에서 “태양에의 사악한 꿈을 꾸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체적인 자아가 추구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 삶은 바로 원죄의 상징인 뱀처럼 선악과를 먹게 하여 누군가는 절망적인 피를 흘리도록 강요하게 되는 혹은 연좌제에 의한 부당한 처벌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하는 사랑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잡초나 늪 속에 온 몸을 사려감고/내 슬픔의 독이 전신에 발효하길/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 때가 바로 시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듯 최승자의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사랑은 원죄의 상징인 뱀처럼 선악과를 먹게 하여 누군가는 절망적인 피를 흘리도록 강요하게 되는 사악한 꿈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자화상>과 <일찌기 나는>에서 반영되고 있는 자기비하와 부정적 언술에는 주체적인 자아가 의식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인식이 얼마나 암담하고 우울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3. 근원적 모태와 병든 모태

최승자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자기비하와 부정적 언술에는 주체적인 자아가 의식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도 고찰해보았듯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추구하고 있던 꿈은 “죽음이 죽음을 따르는/이 시대의 무서운 사랑”이었다. 그리고 최승자가 꿈꾸었던 사랑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든 근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무수한 꿈이

그녀를 짓밟았다/독한 희망에 그녀는 썩어 갔다"(<술독에 빠진 그리움> ①)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꿈꾸었던 사랑에 대한 愛着 때문에 어머니, 여자의 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 여자의 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詩語들은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을 부정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존의식을 반영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체험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이 얼마나 암담하고 피폐한 공간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흰 똥을 갈기고
죽어 삼일간을 떠돌던 한 여자의 시체가
해양 경비대 경비정에 걸렸다.
여자의 자궁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다.
(오염된 바다)
열려진 자궁으로부터 병약하고 창백한 아이들이
바다의 햇빛이 눈이 부셔 비틀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파도의 포말을 타고
오대주 육대양으로 흩어져 갔다.
…(생략)…
야밤을 틈타 매독을 퍼뜨리고 사생아를 낳으면서,
간혹 너무도 길고 지루한 밤에는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언제나 불발의 혁명을.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
(오염된 바다)

—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② 부분

위의 시는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탄생한 바다를 배경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여자의 자궁'과 '파도의 포말'[11]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

어와 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하면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뿜어진 붉은색 피가 바다에 떨어져서 생성된 하얀 거품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여자의 죽음은 새 생명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죽은 여자의 "자궁으로부터 병약하고 창백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파도의 포말을 타고/오대주 육대양으로 흩어져 갔다"는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승자의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어머니, 여자의 몸, 바다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근원적인 모태를 상징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에서는 '오염된 바다'라는 괄호 안의 표현을 통해서 주체적인 자아가 체험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이 얼마나 암담하고 피폐한 공간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최승자가 추구하고 있던 꿈은 "죽음이 죽음을 따르는/이 시대의 무서운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은 행복한 사랑을 추구할 수도 혹은 안락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조차 없는 피폐한 공간이었다. 이러한 점은 "지상의 영원한 집은 없다./이미 깨어진 너의 집은 없다"(<전야>③)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 개념에 의한 본질로 비유하고 있는 '집'은 인간이 최초로 접하게 되는 세계이며 안락한 공간이다. 그런 공간 속에서 인간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가 세계에 企投되어짐과 동시에 거주

11) 泡沫은 한자어로 물거품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파도의 포말'은 하얀 거품에서 탄생한 아프로디테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Aphrodite)의 이름은 거품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아프로스(aphros)'와 유래를 나타내는 여성 접미사인 '디테(dite)'가 합쳐져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을 뜻한다. 하지만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에서의 '포말'은 아프로디테가 탄생한 거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뜻한다. 이러한 점은 "파도의 포말을 타고/오대주 육대양으로 흩어져 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크로노스가 천공의 신 우라노스의 성기를 낫으로 잘라버렸을 때, 성기에서 뿜어진 붉은색 피가 바다에 떨어져서 한 덩어리의 하얀 거품이 되고, 그 하얀 거품 속에서 탄생하였다.(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로마 신화』, 웅진닷컴, 2001, 91-93쪽 참조.)

하고 있던 공간의 가치와 자아를 보호하던 비자아를 인식하게 된다.[12]

그런데 최승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상엔 '영원한 집'도 "이미 깨어진 너의 집"조차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주체적인 자아가 체험하고 있는 세계 혹은 비자아를 인식하게 하는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이 얼마나 암담하고 피폐한 공간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온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모태가 되어야만 하는 '집'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에서는 여자의 몸과 바다를 동일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된 바다'라는 괄호 안의 표현을 통해서 근원적인 모태가 되는, 여자의 몸과 바다가 병든 모태임을 반영한다. 즉, '오염된 바다'라는 괄호 안의 표현에는 주체적인 자아가 체험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인식이 병든 상태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 여자들은 저마다의 몸 속에 하나씩의 무덤을 갖고 있다.
> 죽음과 탄생이 땀 흘리는 곳,
> 어디로인지 떠나기 위하여 모든 인간들이 몸부림치는
> 영원히 눈먼 항구.
> 알타미라 동굴처럼 거대한 사원의 폐허처럼
> 굳어진 죽은 바다처럼 여자들은 누워 있다.
> 새들의 고향은 거기.
> 모래바람 부는 여자들의 내부엔
> 새들이 최초의 알을 까고 나온 탄생의 껍질과
> 죽음의 잔해가 탄피처럼 가득 쌓여 있다.
>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 위해선
> 그 폐허의 사원과 굳어진 죽은 바다를 거쳐야만 한다.
>
> — <여성에 관하여> 전문

위의 시는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의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다. 그뿐

12)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77쪽.

만 아니라 “굳어진 죽은 바다처럼 여자들은 누워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자의 몸과 바다를 동일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에 관하여>에서는 여자들의 “몸 속에 하나씩의 무덤을 갖고 있다”라는 서두로 시작하여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죽기 위해선/그 폐허의 사원과 굳어진 죽은 바다를 거쳐야만 한다”는 결말로 끝을 맺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먼저 거쳐가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통해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에서 죽은 여자의 “자궁으로부터 병약하고 창백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던 근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최승자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어머니, 여자의 몸, 바다, 사원은 집과 같이 평온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두 편의 시에서 ‘굳어진 죽은 바다’와 ‘오염된 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근원적인 모태로 비유되고 있는 바다가 병든 모태로서 순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반영된다. 그 이유는 그녀가 받아들이고 있던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은 병든 모태처럼 우리들의 삶을 병들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개 같은 가을이>다에서 ‘매독 같은 가을’ 혹은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에서 ‘매독을 퍼뜨리고 사생아를 낳’는다는 부정적 언술에는 최승자가 의식하고 있던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인식이 병든 사회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병든 사회라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부정적 언술에는 그녀가 체험하고 있던 공시성(synchronie)의 시대사가 아닌 통시성(diachronie)의 시대사로서 과거와 단절하게 되는 실존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폐허의 사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여자의 몸속에 있는 무덤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유추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승자 시에서 언급되고 있는 寺院은 종교의 교당을 이르는 말인데, 폐허가 되었다는 것은 그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성에 관하여>에서는 “폐허의 사원과 굳어진 죽은 바다를

거쳐야만" 모든 것들이 다시 태어나서 죽을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근원적인 모태가 되고 있는 여자의 몸속에 있는 무덤이라는 공간을 먼저 거쳐가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한 이해는 최승자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실존의식부터 먼저 고찰해보아야만 한다. 그런 후에야 근원적인 모태가 되고 있는 여자의 몸을 무덤으로 비유했던 근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 4. 본질의 벗어남과 실존의식

최승자 시에서 반영된 實存意識은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가 주장하고 있는 實存主義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존(existence)이란 말은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인 'ex-sistere'에서 파생되었다. 그로 인해 실존이란 말의 참된 의미는 奪格으로서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로부터 벗어남에 있다. 무신론자인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적인 神으로부터 아무런 본질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체적인 자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결여된 본질을 만들어가야만 한다.[13] 그렇기 때문에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L'existence précède l'essence.)라는 명제에 담긴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세상보다 먼저 있은 후에 그 존재가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인간이란 존재가 정의될 수 있음을 뜻한다.[14] 그러므로 사르트르가 주장하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보편적 개념에 의한 본질로 정의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승자 시에서 반영

13) 변광배, 『존재와 무-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 살림, 2009, 169쪽.
14) 장 폴 사르트르, 방곤 옮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문예출판사, 1999, 15-16쪽.

되고 있는 실존의식 또한 이와 같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젠 비유로써 말하지 말자.
모든 것은 콘크리트처럼 구체적이고
모든 것은 콘크리트 벽이다.
…(생략)…
사랑하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
기다리는 것이다,
다만 무참히 꺾여지기 위하여.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내 몸을 분질러 다오.
내 팔과 다리를 꺾어

네

꽃
병
에

꽃
아
다
오

—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② 부분

위의 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사랑과 다른 시각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우리의 시는 사랑하는 님의 부재 가운데서 겪게 되는 외로움[15]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승자는 “너는 날 버렸지,/이젠 헤어지자고/너는 날 버렸지,/산 속에서 바닷가에서”(<Y를 위하여>②)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과감하게 노출함으로써 “나 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하는 김소월의 <진달래꽃>[16]과 같은 슬픔의 정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에서는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와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살아,/기다리는 것이다”라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실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사르트르가 주장한 실존주의는 존재를 드러내고 인식할 수 있게 하였던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결정해 줄 절대적인 神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존재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주체적인 자아가 생각하는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주체성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삶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적인 행위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 그로 인해 실존주의자는 존재를 드러내고 인식할 수 있게 하였던 절대적인 神과 함께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부터 부정하게 된다. 그러한 부정을 통해서 실존주의자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아닌 존재로 있게 되고, 그와 동시에 현재 아니 있게 되는 존재 그 자체를 의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존주의자는 아무것도 아닌 부조리한 자신의 존재를 의식

---

15) 전통적인 우리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던 사랑은 주로 이별의 슬픔, 그리움, 기다림, 님의 부재 가운데서 겪게 되는 외로움 등으로 서정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 사랑하는 자는 떠나보낸 님에 대한 戀慕와 情을 간직한 채 수동적인 태도로서 기다리고 있는 보편적인 서정을 반영한다.(엄경희, 「熱情的 사랑의 逆說과 존재의 悲劇性」,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88쪽 참조.)

16) 김소월, 『진달래꽃』, 미래사, 1996, 51쪽.

하게 된 후에 주체적인 자아가 원하는 모습의 주체성을 만들기 위한 가능성을 위해 자유의지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주체적인 자아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행위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에서도 “이젠 비유로써 말하지 말”자는 것은 전통적인 우리의 시에서 보편적으로 반영되고 있던 서정을 부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떠나보낸 님을 그리워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로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슬픔의 정황이 아닌 “콘크리트처럼 구체적이고/모든 것은 콘크리트 벽”과 같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길 바라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을 고결함과 우아함을 간직한 추상적인 관념의 꽃으로 비유하지 않고, 무참히 꺾여져서 꽃병에 꽂아지게 되는 구체적인 사물의 꽃으로 비유한 근원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은 “내 몸을 분질러다오./내 팔과 다리를 꺾어//네//꽃병에//꽂아다오”라는 실천적인 행위를 바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에서도 전통적인 우리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던 보편적인 서정을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주제로 창작되는 작품은 주체적인 자아가 타자를 먼저 선택하여 求愛를 한다하여도 마지막에는 타자로부터 선택이 되어야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랑이란 주제로 창작된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는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인식을 통해 최승자는 실존의식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를 전후로 하여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던 실존의식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밤이면 보편적 어둠에 의해
아니 차라리 배타적 불빛들에 의해
외부와 내부, 상부와 하부

중심부와 주변부가
호화롭게 공존한다.
그러나 내 방의 내부만은
내 방의 내부 속에 닫혀 있다.

저 지겨운 짐보따리 책보따리
추억의 보따리, 절망의 보따리, 희망의 보따리
갈 테면 가라지 하는 푸르른 청춘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는 누르른 청춘의
끝도 없고 피도 없는 건조한 싸움.

하나의 정거장일 뿐,
지상의 영원한 집은 없다.
이미 깨어진 너의 집은 없다.

그러니 가라, 가서 자라.
교과서에서 배웠듯,
"낮은 베개 높이 배고."

(경험이 네 어머니이며
未知가 네 아버지인 것을)

— <前夜> 전문

위의 시는『기억의 집』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시집의 마지막에 실려있는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야>가 내포하고 있는 문학적 가치를 고찰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구명한 작품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각각의 연이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것부터 천착해보아야만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실존이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다. 그렇다는 것은 주체적인 자아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식할 수 있게 하였던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부터 부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그녀의 첫 시

집에 실려있는 <일찌기 나는>을 다시 한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에서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마른 빵에 핀 곰팡이”, ‘오줌 자국, 죽은 시체’라고 표현했던 자기비하와 부정적 언술이 내포하고 있던 상징적인 의미는 보편적 개념에 의한 본질로 인식할 수 없던 존재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 폭력적인 사회 통제가 이루어졌던 1980년대라는 통시성의 시대사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아”닌 존재로서 “시궁창에 빠진 헤진 신발”(<197×년의 우리들의 사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존의식을 반영하고 있던 최승자에게 있어서 보편적 개념에 의한 본질로 인식할 수 있던 자아의 모습은 ‘곰팡이, 오줌 자국, 죽은 시체, 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최승자는 보편적 개념에 의한 본질로 인식할 수밖에 없던 1970~80년대의 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나야만 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전야」에서 “하나의 정거장일 뿐,/지상의 영원한 집은 없다./이미 깨어진 너의 집은 없다”라고 표현했던 근원에 대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한 집’은 절대적인 神이 인간이란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종교의 교당인 사원을, ‘깨어진 집’은 그의 삶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지배체제로서 평온함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없던 부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논점을 벗어나 시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詩란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시 창작을 하기 위해선 言語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는 것은 전통적인 서정을 벗어나 새로운 서정을 정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고 있던 최승자는 <여성에 관하여>에서 근원적인 모태가 되고 있는 여성의 몸에 ‘무덤’이 있다고 말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 근원적인 모태는 평온함과 안락함을 최초로 제공하게 되는 집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神이 인간이란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종교의 교당인 사원으로서 '영원한 집'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승자 시에서는 근원적인 모태가 병든 모태로서 그 기능이 상실된 무덤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집, 깨어진 집, 어머니, 여자의 몸, 폐허의 사원, 죽은 바다'는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을 상징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존주의는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을 부정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승자에게 있어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 위해선/그 폐허의 사원과 굳어진 죽은 바다"(<여성에 관하여>)로서의 무덤인 병든 모태를 거쳐가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되는 근원적인 모태와 부권을 상징하는 '영원한 집'과 '깨어진 집'은 주체적인 자아가 추구하고 있는 목지에 도착하기 위해선 지나쳐서 가야만 하는 정거장과 같다. 달리 표현하면 시가 언어를 벗어나 창작될 수 없듯, 그녀가 추구하고 꿈꾸었던 사랑은 타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듯, 인간이란 존재의 주체성은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을 벗어나선 증명될 수 없다. 그렇다보니 전통적인 서정을 벗어난 새로운 서정을 온전하게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체적인 자아가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서정을 위한 서정 연습만이 존재하게 된다. 최승자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통해 실존의식을 반영한다.

## 5. 맺음말

최승자 시에서 반영되는 자기비하와 부정적 언술은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 폭력적인 사회 통제가 이루어졌던 1980년대의 문화권 안에서 억압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였던 힘,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공시성의 시대사로서 부권의 지배체제인 보편적 개념에 의한 본질로 인식

하게 된 주체적인 자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기 나는>, <197×년의 우리들의 사랑>, <자화상>에서 비유되고 있는 '곰팡이, 오줌 자국, 죽은 시체, 헤진 신발, 개, 뱀'은 주체적인 자아의 모습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시대가 얼마나 암담하고 우울한 사회였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현실인식을 통해 최승자는 실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실존주의는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로부터 벗어남에 있다. 하지만 그의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자기비하와 부정적 언술은 1970~80년대의 지배체제인 부권과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에 관하여>,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 <전야>에서는 부권과 기존의 보편적 개념에 의한 본질로 비유되고 있는 '어머니, 여자의 몸, 죽은 바다, 영원한 집, 깨어진 집'은 근원적인 모태를 상징한다. 하지만 근원적인 모태는 평온함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병든 모태로서 공시성의 시대사와 통시성의 시대사가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돌쩌귀처럼 맞물려 있는 상태이다.

그로 인해 최승자 시에서 병든 모태로 비유되는 여성의 몸에 무덤이 있다는 시적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인식과 함께 평온함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을 죽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모태를 상징하고 있는 죽은 여자의 "자궁으로부터 병약하고 창백한 아이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 위해서/그 폐허의 사원과 굳어진 죽은 바다를 거쳐"가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달리 표현하면 평온함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부권과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부터 단절한 후에 주체적인 자아가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주체성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삶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실존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것이 바로 여성의 몸에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시적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천착해본 결과 최승자의 시가 성취하고 있는 문학적 가치와 그 의미는『기억의 집』이라는 세 번째 시집의 마지막에 실려있는 <전야>라는 두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실존의식에 있다. 실존주의는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로부터 벗어남에 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평온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고 있던 과거로서의 기억되고 있는 '집' — 그것은 보편적 개념에 대한 본질을 상징하고 있는 근원적인 모태 — 으로부터 벗어남에 있다. 그런 후에 새로운 주체성 — 최승자 시에서는 전통적인 서정을 벗어나 새로운 서정 — 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실존의식을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실존주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의미가 부여될 수 없으며, 오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지할 수 없게 된, 한 개인의 고독한 현존상태에 있는 존재 그 자체를 깨닫게 된다.

이러한 반성적인 성찰을 반영하는 <전야>에서 "내 방의 내부만은 내 방의 내부 속에 닫혀 있다"와 함께 "경험이 네 어머니이며/미지가 네 아버지"라고 하는 괄호 속의 표현을 통해 고독한 현존상태에 있는 주체적인 자아의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주체적인 자아가 추구하고 있던 주체성은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에서 이루려고 했던 사랑과 같이 타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야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어떤 행사에 앞서 그 전날 밤에 베풀어지는 축제를 의미하고 있는 전야제를 떠올리게 하는 <전야>라는 제목을 통해 실존의식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존의식은 한 개인이 고독한 현존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식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즉, 최승자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자기비하와 부정적 언술은 주체적인 자아가 의식하고 있던 사회적인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전통적인 서정을 벗어나 새로운 서정을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서정 연습을 통해 실존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임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최승자,『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책세상, 1989.
_____,『즐거운 일기』, 문학과지성사, 2001.
_____,『기억의 집』, 문학과지성사, 2003.
_____,『이 시대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2001.
김소월,『진달래꽃』, 미래사, 1996.

김정신,「최승자 시에 나타난 부정의 정신」,『현대문학이론연구』5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183-207쪽.
김 현,「게워냄과 피워냄」,『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말들의 풍경』, 문학과지성사, 1991, 225-236쪽.
김혜경,「최승자 초기시 연구」,『한남어문학』37, 한남어문학회, 2013, 75-96쪽.
변광배,『존재와 무 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 살림, 2009.
엄경희,「열정적 사랑의 역설과 존재의 비극성」,『어문연구』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87-310쪽.
이윤기,『이윤기의 그리스로마 신화』, 웅진닷컴, 2001.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장 폴 사르트르, 방곤 옮김,『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문예출판사, 1999.

<Abstract>

# Negative Statements and Consciousness of Existence Reflected to Poems by Choi, Seung Ja

Jun, Je-Heong*

This paper analyzed the negative discourse and consciousness of existence in poems by Choi, Seung-Ja. And her poems reflect the gloomy and depressed social reality in the 1970-1980s through self-depreciation and negative discourse that destroy the traditional lyricism. At the same time, her poems deny not only the paternity dominating the time, but also the essence of the existing universal concepts. The consciousness of existence shown in her poems is to get out of the essence of the existing universal concepts. In other words, it means getting out of 'house' that has provided peace and comfort. However, to her, getting out of 'house' providing peace and comfort means the pursuit of a new lyricism after getting out of the traditional lyricism.

The poems pursuing a new lyricism after getting out of the traditional lyricism show the consciousness of existence that could be understood from the existentialism argued by Sartre. Regarding the existentialism, the existence of an individual in the current lonely state where no meanings could be given by any thing and nothing can be depended on for peace and comfort, is realized. She was clearly aware of it. Therefore, the negative discourse and self-

* Han-Nam University

depreciation shown in poems by Choi, Seung-Ja reflect the consciousness of social reality of the time, perceived by an independent ego, and also the consciousness of existence pursuing the new lyricism after getting out of the traditional lyricism, which has been researched by the writer.

Key Words: ex-sistere, negative, woman, house, existence, bubble, matrix.

▌논문접수 : 2018년 6월 30일
▌심사완료 : 2018년 8월 2일
▌게재확정 : 2018년 8월 17일